

분사의 구문론 II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3. 정황적인(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 (The circumstantial[adverbial] participle)

형태상으로는 분사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대별할 수 있지만, 용례와 관련하여 분류할 경우 우리는 헬라어 분사를 주동사의 의미를 서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보충적인 용법의 분사”(supplementary participle), 관형사(명사 수식어)나 명사로 쓰이는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attributive participle), 그리고 부사처럼 사용되거나 부사절을 형성하여 주동사로부터 독립하여 절대적으로 쓰이는 “부사적인 용법의 분사”(adverbial[*circumstantial*] participle)로 대별할 수 있다. 보충적 용법의 분사와 한정적 용법의 분사를 살펴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정황적인(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분사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분사를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분사는 주동사(main verb)에 의존해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거나 주동사에 부가되어 있는 일종의 장식물(pendant)과 같은 것

을 표현한다는 점인데,¹⁾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분사가 이러한 역할을 가장 분명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내에 첨가된 절처럼 사용되는 ‘정황적인 분사’(The circumstantial or adverbial participle)는 고전 헬라어에서와 같이 신약성경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같은 문장 내의 명사(혹은 대명사)와 연결되기도 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것과 일치하는 명사(혹은 대명사)와 연결되기도 하며, 절대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²⁾ 이 가운데에서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정황적인 분사는 소위 ‘속격 독립 구문’(Genitive Absolute)을 이룬다. 정황적인 분사와 문장 내의 나머지 요소들과의 논리적 관계는 분사 자체로 표현되지는 않고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불변화사들을 첨가함으로써 뜻을 명확히 할 수는 있다. 즉 전치사구, 조건을 나타내는 절, 원인을 나타내는 절, 시간을 나타내는 절,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동사들을 문법적으로 결합하는 형태 등 보다 확장되고 명확한 형태의 구조들이 부사적으로 사용된 분사를 대신하여 동일한 뜻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³⁾

- 1)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212, § 411;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99.
- 2) 아래의 내용은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5-220(§ 417-25)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 3)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확장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ἀγνοῶν ἐποίησα ἐν ἀπιστίᾳ*(나는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행하였다, I had acted ignorantly in unbelief)의 *ἀγνοῶν*은 정황적인 의미로 사용된 분사로서 ‘알지 못하는, 모르는’(not knowing)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르고’(ignorantly)라는 부사적인 의미이다. 사도행전 3장 17절은 이러한 ‘정황적인 분사’가 ‘전치사구’로 표현되어 있는 한 예이다. *κατὰ ἄγνοιαν ἐπράξατε*라는 표현에서 전치사구 *κατὰ ἄγνοιαν*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정황적인 분사로 사용된 *ἀγνοῶν*과 마찬가지로 ‘모르고’(in ignorance, ignorantl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 417.

가. 부사절에 상당하는 접속사적 분사

(The conjunctive participle as the equivalent of an adverbial clause)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가 접속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접속어로 쓰이는 분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부사절에 상당한다.⁴⁾

(1) **원인(causal)**.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9절의 *Ἰωσήφ δὲ ὁ ἀνὴρ αὐτῆς, δίκαιος ὢν καὶ μὴ θέλων αὐτήν δειγματίσαι, ἐβουλήθη λάθρα ἀπολύσαι αὐτήν*(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녀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그녀와 은밀하게 파혼하려고 하였다)에서 사용된 분사 *ὢν*은 *ὅτι δίκαιος ἦν* 또는 *διὰ τὸ δίκαιος εἶναι*와 같은 의미이다.

(2) **조건(conditional)**. 누가복음 9장 25절의 *τί γὰρ ὠφελείται ἄνθρωπος κερδήσας τὸν κόσμον ὅλον ἑαυτὸν δὲ ἀπολέσας ἢ ζῆμιωθεῖς*(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에서 사용된 분사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같은 내용이 조건을 나타내는 절(*ἐὰν τὸν κόσμον ὅλον κερδήσῃ τὴν δὲ ψυχὴν αὐτοῦ ζῆμιωθῆ*)로 표현되어 있다.

(3) **양보(concessive)**.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11절의 *εἰ οὖν ὑμεῖς πονηροὶ ὄντες οἴδατε*...(만일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을 알고 있다)가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분사이다.

4) 아래에서 제시되는 용법들 외에도 방식(manner), 수단(means), 결과(result) 등을 뜻하는 부사절을 이루기도 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Michigan: Grand Rapids, 1996), 623 이하 참조.

(4) **목적(final)**. 분사가 목적을 나타내려면 고전 헬라어에서는 미래 분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27장 49절에서의 *εἰ ἔρχεται Ἡλίας σώσων αὐτόν*(엘리아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것인지)에서만 미래분사가 나타나고, 그 외의 예들에서는 현재 분사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 9절의 *ἔπεμψεν φίλου ὁ ἑκατοντάρχης λέγων αὐτῷ*...(그 백부장은 그에게 ...라고 말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보냈다)에서는 현재분사가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5) 접속어로 쓰이는 분사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방식이나 그 행동에 선행하는 어떤 것, 혹은 그것에 동반되는 어떤 것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7절의 *οὐ οὐκ εἰμι ἱκανὸς κύβας λῦσαι τὸν ἱμάντα τῶν ὑποδημάτων αὐτοῦ*(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의 끈도 풀 수 없다). 이러한 의도로 사용될 경우 분사 대신 시간을 나타내는 절이 사용될 수도 있다.

(6) 경우에 따라 *ὢν*이 생략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Στέφανος δὲ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δυνάμεως*(그러나 스테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본래는 “*Στέφανος δε ὢν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δυνάμεως*”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ἔχων, λαβών, ἀρξάμενος* 등의 분사

(1) *φέρων, ἔχων, παραλαβών, λαβών* 등의 분사는 ‘~하면서’(동반의 with)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1절의 *αἵτινες λαβοῦσαι τὰς λαμπάδας ἑαυτῶν ἐξῆλθον εἰς ὑπάντησιν τοῦ κυρίου*는 “자신들의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to meet the bridegroom)이라는 뜻이다.

(2) *λαβών*과 여타의 기술적 분사들(descriptive participle)은 용어적(쓸데 없는 굳더더기 말) 용법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히브리어 패턴을 따른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31절의 *κόκκῳ σινάπεως, ὃν λαβὼν ἄνθρωπος ἔσπειρεν ἐν τῷ ἀγρῷ αὐτοῦ*(어떤 사람이 취하여 자기 밭에다 뿌린 겨자씨)에서 과거분사 *λαβών*은 불필요한 용어적 분사이다.

(3) 고전적인 용법인 *ἀρχόμενος*(at the beginning)나 *τελευτῶν*(in conclusion)은 신약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ἀρξάμενος*가 ‘시작하여, 착수하여’(beginning with)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47절의 *ἀρξάμενοι ἀπὸ Ἱερουσαλή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beginning from Jerusalem)라는 뜻이다.

다. *λέγων, εἰπών, ἀποκριθεὶς* 등과 같은 분사와 이들이 보여 주는 대등관계

분사들이 시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동사와 대등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단순과거 분사가 정동사에 비해 한 시제 앞선 시간을 나타내기보다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동일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⁵⁾ 히브리어에서 ‘질문하다, 대답하다’(to ask, to answer) 등의 뜻을 지닌 정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직접 화법은 통상 *וַיִּשְׁאַל*(칠십인역에서 *λέγων*으로 번역됨)

5) 메이첸(J. G. Machen)의 문법책을 위시한 여러 헬라어 문법서에서는 과거분사(그리고 완료분사)는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J. Gresham, Machen and Dan G. McCartney,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New Jersey: Pearson Education, 2004], 159).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분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분사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분사의 정확한 용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14를 보라.

로 시작되는데, 이에 따라 신약성경에서는 ἀποκρίνεσθαι, λαλεῖν, κράζειν, παρακαλεῖν 등의 동사 다음에 λέγων이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1) 히브리어에서 ‘대답했다’ 라는 말 다음에는 흔히 קָרַע(칠십인역에서는 καὶ εἶπεν으로 번역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신약성경에는 ἀπεκρίθη λέγων 외에 ἀπεκρίθη καὶ εἶπεν과 거의 공식화된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의 형태도 나타난다.

(2) 이 경우 단순과거 분사는 분사로 표시하지 않고 καί로 연결하여 두 개의 일반 동사로 표시하였을 경우에 비해 더 분명하게 시간적인 순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 23절의 φαγόντες εὐφρανθῶμεν은 ‘시간적인 순서를 표현하는 것’(먹은 후에 즐기자)이 아니라 단순히 φάγωμεν καὶ εὐφρανθῶμεν(‘먹고 즐기자,’ Let us eat and celebrate!)과 같은 의미이다. 사도행전 1장 24절의 προσευξάμενοι εἶπαν 라는 표현도 시간적인 순서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동작을 두 개의 동사로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προσευξάμενοι εἶπαν는 ‘기도한 후에 말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했다’ 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 연결된 접속사적 분사들(Conjunctive participles combined)

분사들이 문장 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들 분사들은 접속사를 생략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23절의 ἐξῆλθεν διερχόμενος καθεξῆς τὴν Γαλατικὴν χώραν καὶ Φρυγίαν, ἐπιστηρίζων πάντας τοὺς μαθητάς(그는 거기로부터 나와서 모든 형제들을 굳게 하면서 갈릴리와 브루기아 전역을 차례로 돌아다녔다)에서 분사 διερχόμενος와 ἐπιστηρίζων는 문장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ἐξῆλθεν διερχόμενος*는 *ἐξῆλθεν καὶ διήρχετο ἐπιστηρίζων*과 같은 뜻이다.

마. 정동사에 동족(혹은 관련된) 분사를 첨가하는 것

동사의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동사에 동족 분사나 정동사와 관련된 분사를 첨가하는 것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의 부정사 절대형을 번역할 때 보여 주는 습관과 같은 것이다. 신약에서 이러한 경향은 70인역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14절의 *βλέποντες βλέπετε καὶ οὐ μὴ ἴδητε*(너희들은 분명히 보지만, 깨닫지 못한다), 사도행전 7장 34절의 *ιδῶν εἶδον τὴν κάκωσιν τοῦ λαοῦ μου τοῦ ἐν Αἰγύπτῳ*(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난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등.

바. 속격 독립 구문(The Genitive Absolute)

속격 독립 구문이란 속격 명사 또는 대명사가 속격 분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이루어 있는 것을 이른다.⁶⁾ 따라서 속격 독립 구문은 고전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분사가 지시하는 명사나 대명사가 해당 문장 내에서 주어나 다른 어떤 문장 요소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분사가 지시하는 명사나 대명사가 해당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분사는 해당 명사나 대명사의 성, 수, 격에 맞는 정황적 분사(circumstantial participle)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주동사의 주어와 동일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래 주문장과 구조적으로 매우 밀접한 부정사를 따로 떼어내어 '대격 과 같은 별도의 주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분사절을 독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고전 헬라어 저자들

6) J. Gresham, Machen and Dan G. McCartney,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167.

은 잘 용인하지도 않았을 법한 매우 다양한 독립구문들을 선호한다.⁷⁾

(1) **이어지는 여격을 지시하면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18절의 속격 독립구문 *Ταῦτα αὐτοὺς λαλοῦντος αὐτοῖς*(그[예수]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에서 분사 *λαλοῦντος*의 주어로 쓰인 속격 대명사 *αὐτοῦ*는 이어지는 문장인 *ἰδοὺ ἄρχων εἶς ἐλθὼν προσεκύνη αὐτῷ*(보라! 한 지도자가 와서 그에게 경배하였다)에서 여격 *αὐτῷ*와 동일한 인물인 예수를 지칭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도 속격 독립구문인 *Λαλοῦντων δὲ αὐτῶν πρὸς τὸν λαόν*(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에서 분사의 주어로 쓰인 *αὐτῶν*은 이어지는 주문장 *ἐπέστησαν αὐτοῖς οἱ ἱερεῖς καὶ*...(제사장들과 ...가 그들에게 왔다)의 *αὐτοῖς*를 지칭한다.

(2)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전치사 없이 사용되는 대격을 지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25절의 속격 독립구문 *μὴ ἔχοντος δὲ αὐτοῦ ἀποδοῦναι*(그러나 그는 지불할 것이 없었다)에서 분사 *ἔχοντος*의 주어로 사용된 속격 인칭대명사 *αὐτοῦ*는 이어지는 문장인 *ἐκέλευσεν αὐτὸν ὁ κύριοςπραθῆναι*(그 주인은 그에게 팔아야 한다고 명령했다)에서 대격 인칭대명사 *αὐτὸν*과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다.

7) 분사가 지시하는 명사나 대명사가 해당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경우 정형적인 분사를 사용하는 고전 헬리어에 비해서 신약성경 저자들이 속격 독립구문을 다소 자유롭게 사용하긴 하지만, 속격 독립 구문에는 구조와 의미론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일종의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구조에 있어서: ① 명사나 대명사가 속격이어야 한다. ② 함께 사용되는 속격 분사는 관사가 없어야 한다(항상). ③ 통상 전체 구문이 문장의 앞부분에 자리한다. 2) 의미론적으로: ① 이 구문은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예를 들어 속격 명사나 대명사인 분사의 주어는 주문장의 주어와 다름). ② 속격 분사는 항상 부사적(정형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어도 의존적인 동사로 사용된다(즉 형용사적이나 명사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 ③ 경우에 따라 다른 뜻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대략 90% 정도) 시간을 나타내는 절로 사용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54-65.

(3) 이어지는 속격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 경우 그 대명사는 결과적으로 용어법(冗語法), 즉 불필요한 중복어(pleonastic)가 된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절의 *σοῦ δὲ ποιούντος ἐλεημοσύνην μὴ γνώτω ἡ ἀριστερά σου τί ποιεῖ ἢ δεξιὰ σου*(네가 구제를 할 때에는,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의 왼손이 알게 하지 말라)에서 속격 인칭 대명사 *σοῦ*가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가장 거슬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적게 등장하는 경우는 ‘선행사’(antecedent)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이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8절 *μηστυθείσης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Μαρίας τῷ Ἰωσήφ, πρὶν ἢ συνελθεῖν αὐτοὺς εὐρέθη*(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을 때, 아직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녀가 [잉태된 것이] 알려졌다)에서 *τῆς μητρὸς*와 연결되는 말은 주동사 *εὐρέθη*의 숨은 주어 *αὐτή*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접속사 *πρὶν*과 함께 삽입되어 있는 부정사(가이 부정사도 별도의 주어인 *αὐτοῦς*를 갖고 있음) 뒤이어지는 파격구문(anacolouthon)을 완화시키고 있다.

(5) ‘이미 앞에 나온’ 단어(a preceding word)를 지칭하는 속격 독립구문은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속격 독립구문 *μὴ σκοπούντων ἡμῶν*(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에서 *ἡμῶν*은 앞 절의 *ἡμῖν*을 지칭한다.

(6) 그러나 고전 헬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분사가 지칭하는 명사나 대명사는 문장의 문맥상 암시되어 있을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 36절의 *ἵνα ἐλθόντος καὶ κρούσαντος ἐσθῆως ἀνοίξωσιν αὐτῶ*([그, 즉 주인이] 와서 두드릴 때, 즉시 그들이 그에게 열어줄 수 있도록)에서 생략되어 있는 분사의 주어는 이어지는

αὐτῷ와 동일한 인물이다.

사. 대격 독립 구문(accusative absolute)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대격 독립 구문(accusative absolute)의 예는 고린도전서 16장 6절의 *πρὸς ὑμᾶς δὲ τυχόν παραμενῶ ἢ καὶ παραχειμάσω*(나는 '아마도' [τυγγάνω의 단순과거, 중성 단수, 대격 분사로서 문자적으로는 'It happened' 라는 의미임] 너희와 함께 머물거나 겨울까지 날 수도 있다)이며, 그 외에는 누가복음 20장 3절과 사도행전 12장 15절의 D 사본(베자 사본) 읽기에 유사한 예들이 등장할 뿐이다.⁸⁾

아. 분사구문과 함께 쓰이는 불변사들(Particles used with a participial construction)

(1) 분사의 양보적 의미(concessive sense)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καίπερ*(although, albeit)는 신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의 *καὶ ταῦτα νεκρωμένου*(그가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καὶ ταῦτα*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예이

8) 무울(C. F. D. Moule)은 “여격 독립 구문”(Dative Absolute)을 또 하나의 독립 구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라틴어 탈격(부사격)처럼 사용되는 헬라이어격 중에 라틴어의 ‘탈격 독립 구문’(Ablative Absolute)이나 헬라이어의 ‘속격 독립 구문’(Genitive Absolute)과 마찬가지로 주술부로부터 이탈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여격이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 6절의 *γενεσίῳ δὲ γενομένοις τοῦ Ἡρώδου*는 ‘헤롯의 생일이 되자’(When Herod’s birthday celebrations had come)라는 뜻이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8절에 대한 P⁴⁵ 사본의 읽기가 정확하지 않다면(P⁴⁵: *εἰσελθόντι αὐτῷ*, 다른 대부분의 사본에는 속격 독립 구문으로 되어 있음) 신약에는 이와 같은 예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예로 제시된 마태복음의 본문 역시 단순히 시간의 여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44-5.

며, 히브리서 4장 3절의 *καίτοι τῶν ἔργων ἀπ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γενηθέντων*(실로 그 일들이 세상의 기초로부터 생겨났다고 하더라도)에 서는 보다 덜 고전적인 형태인 *καίτοι*(indeed, further)가 속격 독립 구문에서 쓰인 분사의 양보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2) 신약성경에서는 *ὡς*(as, although, when 등)만이 비교적 자주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αὐτοὶ γὰρ ἀγρυπνοῦσιν ὑπὲρ τῶν ψυχῶν ὑμῶν ὡς λόγον ἀποδώσουσες*(왜냐하면 그들은 계산할 자로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기 때문이다)나 누가복음 16장 1절의 *οὗτος διεβλήθη αὐτῷ ὡς διασκορπίζων τὰ ὑπάρχοντα αὐτοῦ*(그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ὡς ἰδίᾳ δυνάμει ἢ εὐσεβείᾳ πεποιηκόσιν τοῦ περιπατεῖν αὐτόν*(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가 걷게 한 것처럼) 등.

(3) 이러한 *ὡς*는 분사가 생략되는 생략법 구문들(elliptical constructions)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23절의 *ὁ εἴαν ποιῆε, ἐκ ψυχῆς ἐργάζεσθε ὡς τῷ κυρίῳ καὶ οὐκ ἀνθρώποις*(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마음으로부터 행하라).

(4) 고전 헬라어에서 이전에 서술된 분사들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던 *οὕτως*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 20장 11절의 *ἀναβάς δὲ καὶ κλάσας τὸν ἄρτον καὶ γευσάμενος ἐφ' ἱκανόν τε ὁμιλήσας ἄχρι αὐγῆς, οὕτως ἐξῆλθεν*(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은 후 심지어 새벽이 될 때까지 강론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가 떠났다)에만 등장한다.

자. 완곡어법의 여러 활용 형태들(Periphrastic Conjugations)

(1) 완료체계에서(In the perfect system)

고전 헬라어에서 이미 일정한 필요에 따라 현재완료와 과거완료, 미래완료 능동태와 수동태의 완곡어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분사들과 함께 *εἶναι* 동사를 사용해왔다. 신약에서 완곡어법이 필요한 경우는 미래완료와 현재완료 가정법이다. 그러나 다른 시제의 경우에는 완곡어법이나 직접적인 서술이나 별다른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오히려 완곡어법은 경우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보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1장 29절의 *ἦσαν γὰρ προεωρακότες Τρόφιμον τὸν Ἐφέσιον ἐν τῇ πόλει σὺν αὐτῷ*(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에베소 사람 트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등.

(2) 현재분사와 함께 사용되는 *εἶναι*의 형태들

동사의 완곡어법적인 여러 활용 형태들(Periphrastic Conjugations) 가운데 *εἶμι* 동사가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εἶμι* 동사는 신약성경에서 현재 분사와 함께 완곡어법을 표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신약에서 *εἶμι* 동사가 완곡어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정법과 함께 쓰이는 예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외 미완료에서는 *ἦν* 이, 미래에서는 *ἔσομαι*가, 드물기는 하지만 현재 직설법에서는 *εἶμι*가, 부정사를 위해서는 종종 *εἶναι*가, 그리고 현재 명령법을 위해서는 *ἴσθι*가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되어 해당 시제를 완곡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성서시대의 헬라어(Hellenistic language)나 심지어 훨씬 민예적인 파피루스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신약의 용례가 나타나는 빈도에 있어서도 누가 문서(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반부)가 가장 빈번하고 다음으로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록 희랍어에서 가능하기는 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용법은 적어도, 특히 미완료에 있어

서는 오히려 완곡어법에 대한 광범위한 선풍적 용례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시제, 법 별로 신약성경에서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되어 완곡어법을 보여 주는 *έμι*동사의 용례로는 고린도후서 9장 12절(현재 직설법의 완곡어법, *ή διακονία τής λειτουργίας ταύτης ού μόνον έστιν προσαναπληρούσα ... αλλά και περισσεύουσα...*, “이 봉사의 직 무가 단지 ...을 보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정사의 완곡어법, *έν τῷ εἶναι αυτόν προσευχόμενον*,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25절(명령법의 완곡어법, *ίσθι εὐνοῶν*, “화해하라”), 마태복음 10장 22절(미래의 완곡어법, *έσεσθε μισούμενοι ὑπό...*, “너는 ...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래에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작의 지속(duration)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대한 D사본의 읽기인 *έσόμεθα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우리가 지속할 것이다)도 동작의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필사자의 수정으로 보이며, 본문의 미래 시제를 ‘반복이나 지속’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본래 미래 시제는 오로지 시간만을 지칭할 뿐 *Aktionsart*를 표현하지는 않으므로 미래 시제만으로는 완료된 동작이라거나 지속적인 동작이라거나 하는 점을 구별할 수는 없다. § 348 참조).

(3) 현재분사나 현재완료 분사와 함께 쓰이는(다양한 시제의) *γίνεσθαι*
 현재분사나 현재완료 분사와 함께 쓰이는 다양한 시제의 *γίνεσθαι*가 완곡어법과 유비적인 방식으로 상태나 조건의 시작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μη γίνεσθε έτεροζυγούντες άπίστοις*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부적절한 짝을 맺지 말라”(Do not be mismatched with unbelievers)라는 뜻이다.

(4) 단순과거 분사와 함께 쓰이는 *είναι*

고전헬라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용법인 단순과거 분사와 함께 쓰이

는 εἶναι는 동사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후대에 이르러 이러한 용법의 εἶναι는 과거 완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3장 19절의 ὅστις ἦν διὰ στάσιν τινὰ γενομένην ἐν τῇ πόλει καὶ φόνον βληθεὶς ἐν τῇ φυλακῇ(그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반란 및 살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수감되었던 자이다)는 과거완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완곡어법이다.

(5)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μέλλειν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μέλλειν은 미래와 마찬가지로 ‘절박함 혹은 임박함 (imminence)을 표현한다. 이러한 형태의 완곡어법은 과거 시점에서도 임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 2절의 ἤμελλεν τελευτᾶν(그가 막 죽으려 하였다, 즉 곧 죽음에 임박하였다) 등. 심지어 가정법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3장 4절의 πότε ταῦτα ἔσται καὶ τί τὸ σημεῖον ὅταν μέλλῃ ταῦτα συντελεῖσθαι πάντα;(언제 이것들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려 할 때는 언제입니까?) 등. 또한 미래 분사는 속격 독립 구문에서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며 항상 주동사와의 조합에 한정되는데 반해,⁹⁾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μέλλειν은 보다 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μέλλειν은 다음과 같은 속격 독립 구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μέλλοντος δὲ τοῦ Παύλου ἀνοίγειν τὸ στόμα(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자) 등.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9) 신약에서 미래분사는 매우 드물게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보충적 분사로만 사용된다.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 351 참조